

증례 V - 3

교합고경을 상실한 골격성 3급 환자의 전악 수복 증례

이영희, 이주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

치주적 문제로 수직 고경의 감소가 오랜 기간 진행된 경우에 교합평면의 조화가 무너지고 저작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적절한 수직 고경의 회복과 교합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수직 고경의 회복을 위해 splint와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55세 여자환자로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점진적인 치아상실과 이로 인한 수직 고경의 상실로 저작의 불편감과 심미적인 이유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상악은 전치부와 잔존치근만 남은 상태였고, 악골간 관계는 심한 골격성 3급 관계였다. 하악은 우측편위 및 교합평면의 tilting이 보이면서 구치부의 극단적인 정출이 있었다.

일차로 발치 및 치주 처치후 교합고경의 증가를 위해 상악에 provisional RPD를 3개월간 장착하였다.

최종보철물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 상하악 국소 의치를 제작하였다.

상하악 악궁의 arch form의 모양 및 크기 차이로 전치부와 우측 구치부는 crossbite로 배열하였고, buccalized occlusion으로 형성하였다.

교합고경의 증가로 인한 TMJ의 problem은 보이지 않았으며, 환자는 기능과 심미에 만족하였다.

국소의치 장착 후 최근 4개월간의 recall check이 이루어졌다.